

## 고교생들 내년부터 '4·3' 제대로 배운다

제주4·3 객관적으로 담은 한국사 교과서 8종 사용 '폭동' → '통일정부 수립 노력의 큰 흐름'에서 설명 "청소년 세대, 4·3 진실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

제주4·3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큰 흐름에서 설명한 한국사 교과서가 내년 새 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 2000년까지 모든 교과서에 '폭동'으로 규정됐던 제주 4·3을 객관적으로 담아낸 교과서가 발간되면서 청소년 세대가 4·3의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

래엔·비상교육·씨마스·지학사·천재교육·해남에듀)은 제주4·3을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담았다. 이들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큰 단원 안에서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할 핵심요소로 제주4·3을 다뤘다.

4·3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고 다양했다. 한 교과서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제주4·3사건'이라는 제목으로 2쪽에 걸쳐 1947년 3·1절 발표사건부

터 2014년 4·3국가추념일 지정까지의 흐름을 담은 연표와 제주4·3 현장, 4·3 진상보고서 문헌 등을 함께 실었다. 또 다른 교과서는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과 영화 '지슬'을 자료로 활용해 제주4·3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제주4·3을 한국전쟁 이전의 역사로 다뤘었다. 이로 인해 4·3이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 대립의 소용돌이 등으로 규정되면서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4·3 왜곡·편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교학사가 2013년 만든 역사교과서도 4·3을 폭동으로 서술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내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4·3 서술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4·3 집필기

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7년 '검정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위상 설정 등을 포함한 집필기준안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새로운 집필기준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내년 3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에 담기게 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주4·3이 바르게 담긴 교과서를 도민에게 보일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4·3이 더욱 상세하고 진실에 맞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신임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문대통령, 17일 지명·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사진·69)을 지명했다.

정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전주신고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쌍용그룹 상무이사를 지냈고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당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자 지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된다. 국회는 청문요청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부미연기자 bu8385@ihalla.com

## "고용장려금 고마워요"

도내 중기 10곳 중 2곳 수혜 4만7000명 혜택... 20% 늘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1월말 기준 도내 중소기업 6만2828곳 중 1만4575곳이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았으며, 근로자 27만5701명 중 4만7209명이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중소기업은 33.2%p, 근로자는 20.2%p 각각 상승한 수치로 어려운 고용시장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한 고용장려금은 24개 사업으로 고용창출·안정·유지한 사업장에 436억7400만원을 지원했다.

계층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청



겨울비 속 휴식 즐기는 원앙 겨울비가 촉촉하게 내린 17일 제주시 외도동 외도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원앙 100여 마리가 비를 맞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년인 경우 청년취업지원 프로젝트, 청년 보금자리,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등 일하는 청년 3종 세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7개 사업에 37억7100만원을 투입해 888개 사업장에 1884명을 지원했다.

중장년은 중장년취업지원 프로젝트,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중장년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등 5개 사

업·369개 사업장·700명 지원에 15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여성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사업,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2개 사업에 19억4700만원·178개 사업장·614명을 지원했다.

노인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연장 등 4개 사업에 12억8800만원·314개

사업장·585명을 지원했다.

기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166개사업장 620명에 대해 27억3100만원을 투입했고, 전연령층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휴업,휴직) 등 5개 사업·1만2660개 사업장·4만2806명 지원에 323억8700만원을 투입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10명 중 9명 "JDC 교육특강 만족"

올해 4차례 JDC 특강 진행 설문결과 내용 등 만족도 커

올해로 5년째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한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은 교육특강'이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와 JDC는 6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교육특강을 진행했다. 이 기간 주호민 웹툰작가와 헤어디자이너 태양, 뮤지컬 배우 홍지민, 여행작가 손미나가 강사로 나서 도내 청소년과 학부모를 만났다.

올해 이어진 교육특강도 내용과 지도법 등에서 호응을 받았다. 참석자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430명) 이상이 강사 지도방법과 내용에 '만족한다'('매우 그렇다' 67%, '그렇다' 25%)고 답했다. 프로그램 수준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317명, 68%), '그렇다'(119명, 25%) 등의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교육특강을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10명 중 9명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21%)고 했다. 다시 참석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5%(303명)가 '매우 그렇다', 25%(119명)가 '그렇다'고 답해 교육특강에 대한 참석자들의 호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참석자들은 교육특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JDC가 교육특강 등 미래인재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93%(432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1%, '그렇다' 22%)고 했고, 응답자 10명 중 8명(428명)은 교육특강이 JDC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23회 The 23rd Jeju Fire Festival

# 제주 불꽃축제

济州野火庆典·济州野焼き祭り

들불, 소망을 품고 피어올라!

Fire on the Field, Rising up with All the Wishes

野火燃烧, 放飞希望  
野焼き, 希望を孕んで燃え上がる

2020. 3. 12(목) THU ~ 3. 15(일) SUN

오름불놀이 2020. 3. 14(토) SAT

제주시 일원(새별오름) Jeju-si Area(Saebyeol Oreum) 濟州市一帶(曉星岳) 濟州市一帶(セビョルオルム)

주최 제주시 | 주관 제주시관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